



환경부

# 보도자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2022. 8. 11.(목) 12:00 (금요일 조간)	배포 일시	2022. 8. 10.(수)
담당 부서 <총괄>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책임자	과 장 신건일 (044-201-6805)
		담당자	사무관 송성욱 (044-201-6809)

## 안전·표시기준 위반한 623개 생활화학제품 퇴출

### - 화학제품안전법 위반한 제품에 대해 제조 및 수입 금지 등 행정조치 -

-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직무대행 이우원)은 올해 상반기(2022년 1월~6월) 동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한 623개 생활화학 제품에 대해 제조 및 수입 금지 등과 함께 유통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 이들 위반제품은 △신고 당시에는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68개 제품, △시장 유통 전에 안전기준 확인·신고 등 절차를 위반한 543개 제품, △신고번호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12개 제품이다.
-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68개 제품은 미용접착제(26개), 문신용염료(15개), 광택코팅제(7개), 방향제(7개), 기타(13개) 등이었다.
- 미용접착제 26개 제품에서는 함유금지물질인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가 최대 517mg/kg, 문신용염료 10개 제품에서는 니켈이 최대 13.6mg/kg 검출됐다.
- 또한, 광택코팅제, 방향제, 탈취제 등 5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을 최대 16.7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안전기준 미확인·미신고 543개 제품은 방향제(232개), 초(133개), 문신용 염료(23개), 기타(155개) 등이었다.

○ 특히, 살균제 14개 제품은 안전기준을 확인받지 않았으며, 가습기용 향균·소독제제 1개 제품은 승인받지 않은 채 유통하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또한, 여름철 소비량이 많은 ‘보건용 살충제’와 ‘보건용 기피제’ 13개 제품은 안전성에 대한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조 및 판매를 하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 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행정처분과 함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고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 유통차단 흐름도 : 행정처분 공표(환경부) →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등록 (대한상공회의소, 실시간) → 온·오프라인 유통차단(유통업체)

○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 환경부는 앞으로도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등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관계기관 간 협업 강화 등을 통해 불법 제품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붙임 1. 질의응답.

2. 전문용어 설명.

3. 안전기준 초과 주요 물질의 유해성 자료. 끝.

※ 별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위반현황(2022.1.~6.)

담당 부서 <총괄>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책임자	과 장 신건일 (044-201-6805)
		담당자	사무관 송성욱 (044-201-6809)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책임자	센터장직무대행 홍석정 (02-2284-1868)
		담당자	선임연구원 고기오 (02-2284-1833)

### 1. 위반 제품은 어디서 확인 하는지?

- 위반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에서 확인이 가능

### 2. 위반제품을 발견한 경우 신고방법은?

- 국민신문고로 민원접수하거나 초록누리 사이트(ecolife.me.go.kr)에서 '부적합 의심 제품신고'(국민신문고로 연계)를 이용하여 신고
  - 신고포상금 제도 참여를 원하는 경우 위반행위 신고서 양식\*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 추후 심사를 거쳐 포상금 지급
-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의 별지1호 서식을 참조(인터넷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내려받기 가능)

### 3. 소비자가 구매한 위반제품의 교환·환불 방법은?

- 제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교환·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반품
- 소비자들이 회수조치 이후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환경부장관이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

- (관리범위)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

- (지정현황)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 총 39개 품목

분류	품목
세정제 품	1. 세정제 2. 제거제
세탁제 품	1. 세탁세제 2. 표백제 3. 섬유유연제
코팅제 품	1. 광택 코팅제 2. 특수목적코팅제 3. 녹 방지제 4. 윤활제 5. 다림질보조제
접착·접합제 품	1. 접착제 2. 접합제
방향·탈취제 품	1. 방향제 2. 탈취제
염색·도색제 품	1. 물체 염색제 2. 물체 도색제
자동차 전용 제품	1. 자동차용 워셔액 2. 자동차용 부동액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1. 인쇄용 잉크·토너 2. 인주 3.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미용제품	1. 미용 접착제 2. 문신용 염료
살균제품	1. 살균제 2. 살조제 3. 가습기용 항균·소독제 4.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 독제
구제제품	1. 기피제 2. 보건용 살충제 3. 보건용 기피제 4.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5.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보존·보존처리제품	1. 목재용 보존제 2.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기타	1. 초 2. 습기제거제 3. 인공 눈 스프레이 4. 공연용 포그액 5.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 위해성평가 : 제품에 함유 가능한 물질에 대한 독성정보를 기초로  
제품을 실제 사용할 때 유해물질이 인체에 노출되는 경로, 量과 빈도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을 평가하는 방법

- **안전기준** : 원료물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물질별로 독성이나 위해성에 따라 어떤 품목에는 사용 제한, 어떤 품목에는 기준치 이상으로 함유할 수 없도록 규정한 기준
  - **표시기준** : 제품 포장에 제품명,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번호, 사용상 주의사항 등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는 정보를 표시하도록 한 기준
  -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대한상공회의소 운영)**: 환경부, 식약처, 산업부에서 제공한 위해상품정보(제품명, 업체명, 사진, 바코드 등)를 유통업체 본사에 일괄 전송하고, 유통사는 이 정보를 각 매장에 전송하여 판매를 차단하는 시스템
- \* 바코드 있는 제품은 즉시 판매 차단 가능. 바코드가 없는 제품은 제품명, 업체명, 사진 등의 제품정보 확인을 통해 위해상품 판매 차단



**○ 메틸메타크릴레이트(Methyl Methacrylate)**

- 무색의 액체로 피부, 눈, 코, 인후, 기관지 점막을 자극함
- 높은 농도로 노출 시 폐부종을 일으킬 수 있으며, 어지러움, 과민증, 집중력 장애, 기억력 감소, 태아 발달 장애 및 피부 알러지가 유발할 수 있음

**○ 니켈(Nickel)**

- 은백색의 강한 광택이 있는 고체로서 가단성과 연성을 지님
- 피부 접촉 시 가려움, 발진 등의 증상을 일으킴
-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흡입할 경우 호흡의 짧아짐, 기침, 쉼근거리는 소리, 가슴압박 등의 천식이 발생할 수 있음
- 고농도에 단시간 노출되면 눈과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노출되는 경우 신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

- 무색 투명한 액체로 자극적이며 질식성의 냄새를 가지고 있는 물질
- 흡입 시 목의 쉼, 출혈, 콧물분비 및 비강상피의 세포증식과 기저세포 과형성이 관찰됨
- 만성적으로 흡입독성, 간독성, 유전 독성 및 발암성이 동물 및 인간에서 확인되었음
- 국제암연구소(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의 발암성 분류에서 인간에게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인 1군으로 분류됨